주님 세례 축일 2015 년 1 월 11 일 (나해)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5 권 2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부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 – 8 시). 화, 목요일(오후 2 – 6 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묵주의 기도 바치는 법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1/11	유 요한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18	이 클라라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1/25	이 마틸다	김 헬렐나	성인복사
2/1	유 요한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1/4 일 봉헌금 내역은 다음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한국어 평일미사 :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견진성사: 1/18 (주일) 샌프랜시스 성당
오는 1 월 18 일 (주일)에, Kern, Inyo 카운티의 신자들을 위한 견진성사가 주교님의 집전으로 샌프랜시스 성당에서 열립니다. 한인공동체에서는 홍 마르코 형제, 아네스 자매님께서 견진성사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공 동 체 소 식

평협임원회의: 1/13 (화) 저녁 8 시
한인공동체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1 월달 회의는 1 월 13 일(화) 저녁 8 시에 친교실에세 있습니다.

소구역 공동체 모임: 1/18 (주일) 주일 아침미사 후
신년 첫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오는 1 월 18 일 주일 미사 후 에 있습니다.

산클레멘테 Parking Lot Sale: 2/18 (토) 오전
산클레멘터 공동체 '주차장 세일 행사'가 2 월 29 일 오전에 있습니다.
물품을 후원하시고 싶으시거나, 벤더(Vendor)로 참여하실 분은,
Susana (661-247-7970) 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Vendor set-up: 오전 5:30-6:30. **OPEN to the public: 오전 7 시- 오후 1 시**

'세금보고'를 위한 영수증
세금보고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한 영수증(Charity Donation Receipt)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 (이그레이스 자매)님께 1 월 31 일부터 신청해 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처음으로 돌아가서

신달자 엘리사벳 | 시인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미래에 대한 구상에 앞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일도 소중한 일일 것 같습니다. 가령 독서를 할 때 새로운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읽고 감동받았던 책을 다시 한번 읽어 보는 일도 의미가 있듯이 말입니다.

저는 제 신앙이 무미건조하게 관습적으로 된다고 느끼면 첫영성체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첫 페이지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북받쳐옵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알거나 성령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고 환희가 가슴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얼룩을 지우고 새 기쁨 안으로 들어서는 기분은 참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온몸에서 뜨거워졌습니다. '무엇이든지 와라. 내가 변했다. 내 안에는 누구도 범치 못할 성령이 있다.' 그런 마음의 힘까지 일어났습니다. 단연 으뜸은 기쁨과 행복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불행이나 잘못되어 가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남의 탓으로 돌리던 것에서 나의 탓으로 돌리고 용서를 비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세례를 받는 순간 제 기도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본래의 제가 아니었기에 눈물이 온몸을 적셨지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 폭풍 이름이냐? 풀잎 이름이냐? 뭐 바윗덩이 이름이냐?' 하고 빈정거리는 정신의 건달에게 그래요, 저같은 혼의 노숙자에게 어떻게 주님이 손잡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감동이 컸습니다. 특석이아니라 모든 군중과 함께 서 계시는 3등석에서 걸어오시는 장면이야말로 '쿵!' 하고 가슴을 내려치는 것 같았으며, 저 자신을 한량없이 낮추어야만 하는 신앙의 큰 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 이라는 요한의 증언은 오만으로 빳빳한 허리를 굽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는 될 수 없다 해도, 속썩이고 문제 발생만이라도 안하는 주님의 딸이 될 수 있기를 새해에도 간곡히 기도합니다.

저도 주님 마음에 드는 딸이고 싶은데, 내 생애 단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싶은데, 특석만을 노리고 3등석은 당연히 남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불충을 벗을 때 가능한 일일까요.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는 최초의 약속을 잊고서 감사보다는 구하는 것이 많아졌고 불평이 도를 넘습니다. 저를 낮추어야 주님과 눈이 마주칠 수 있다는 기본 성경 가르침마저도 저는 모른척하려 듭니다. 아닙니다. 처음엔 담벼락에도 주님이 계시리라 곡진히 엎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떨리는 손으로 성호를 긋던 그때의 설렘으로 돌아가 봅니다.

다시 옷깃을 여미는 새해 순간순간, 세례를 받는 영혼이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세례의 축복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머무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주님의 장엄한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들에게 세례의 순간은 회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입니다. <서울주보에서>